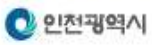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2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정책담당 • 담당자	유상용 김기완	☎440-3561 ☎440-356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 및 통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 착수 -
-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순환 정책 수립, 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 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 및 통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인천연구원 및 시·군구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 및 통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은 폐기물 관리현황 및 주요 폐기물 물질흐름을 분석해 시·군구 통계작성 실무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이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분야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환경부로 지역의 폐기물 통계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폐기물 통계는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의 신뢰성 확보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통계 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승인 폐기물 통계는 작성부터 공표까지 1년이 소요되는 업무로서 명확한 과거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계자료의 수치산출 등 작성방식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등 통계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통계 작성하는 시군구 실무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요구를 반영해 폐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수거되어 재활용시설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을 거쳐 매립시설에 최종 처분되는 물질흐름을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폐기물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폐기물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정확한 폐기물 분석 데이터와 통계에 바탕을 둔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통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